

판소리 조와 장단(수궁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의 음악은 조와 장단으로 구성된다. 조는 음의 높고 낮음으로 가락의 짜임새에 따라 만들어지는 음악적 규칙이다. 장단은 음의 길고 짧음으로 박자의 속도, 강약으로 만드는 음악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음을 꾸미는 장식음인 시김새와 리듬 변화와 기교로 가사를 붙여내는 붙임새, 발성 음질, 목소리의 음색을 바꾸는 성음 등을 더해서 판소리를 구성한다.

판소리 조는 계면조, 우조, 평조, 설령제, 추천목, 경드름 등을 사용한다. 계면조는 슬프고 애절한 느낌을 담아낸다.(별주부 모친 탄식, 별주부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탄식하는 장면) 그러나 의외로 기본 장면에서도 사용하기도 한다. 우조는 씩씩하고 장엄한 느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에 사용된다.(별주부 들어오는 대목, 본인이 목숨을 걸고 토끼 간을 구해오겠다며 비장한 마음으로 어전에 들어오는 장면) 드물게 사용하는 평조는 담담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로 사용된다.(상소 읽는 대목)

판소리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역대 명창들이 새로운 조를 개발하고 판소리에 집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더 넣었다.'는 뜻으로

'더늠'이라고 불렀다. 창자가 독창적으로 소리와 사설, 발림을 짜서 연행하고 이후 다른 창자들에게 의해 후대에 전승된 판소리 대목을 말한다. 더늠으로 수용된 조는 설령제, 메나리조, 가곡성 우조, 추천목, 경드름 등이 있다. 판소리 조는 더늠을 통해 판소리 음악 양식의 다양성과 감정 표현의 풍성함을 나타낸다.

계면조, 우조를 많이 들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역의 음악 양식 차용은 낯설고 생소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메나리조(초동목수 내려오는 대목, 초동목수가 토끼 잡으로 내려오는 장면), 반경드름(토끼 육하는 대목), 추천목(경기지방의 음악, 밝고 경쾌함, 토끼 춤추는 대목) 같은 조는 특이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특별한 분위기로 전환할 때 사용된다. 그 외 설령제, 가곡성 우조가 있다. 더늠으로 인해 장단도 다양화되었다. 기본 장단인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를 바탕으로 판소리 극적 상황이나 전개에 적합한 장단(진양조, 엇모리, 휘모리 등)을 수용하였다.

※ 출처: e-국악아카데미 [이론] 수궁가의 이해(2) 수궁가의 음악적 특징 내용 발췌
<https://academy.gugak.go.kr/common/greeting.do>

장단	설명	대목
진양조장단	• 느린 호흡으로 매우 웅장하거나 슬픈 대목에서 사용하여 감정을 극대화할 때 사용	용왕 탄식하는 대목
중모리장단	• 천천히 걷는 속도감을 표현한 장단	초동목수 길소리 (초동목수가 길을 걸어갈 때 부르는 소리)
중중모리장단	• 덩실거리며 춤추기 좋은 빠르기의 장단	토끼 춤추는 대목
자진모리장단	• 중중모리장단보다 바쁜 느낌 • 많은 가사를 나열할 때 사용	일개한퇴 대목 (별주부가 토끼를 피기 위해 육지에서 위험하고 불안한 토끼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자진모리장단을 사용)
휘모리장단	•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급박한 상황 묘사에 효과적임	호랑이 도망가는 대목 (호랑이가 급소를 물려 놀라 엄청 빠른 속도로 도망갈 때 사용)
엇모리장단 (3+2+3+2)	• 엇나가는 장단이라 신비로운 느낌을 만드는데 효과적임 장단	도사가 내려오는 대목 (왕의 병을 진맥하는 내용)